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죽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전남 휴일 날씨
27(土) 구름 많음 -1/13℃
28(日) 구름 많음 3/12℃

단기 4343년 (음력 2월 12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634호 1판 2010년 3월 27일 토요일

광역의회는 '신의 직장'?

의원들 年 52차례 회의 참석하고 연봉 5천만원 받아

시간당 의정비 광주 62만원·전남 50만원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의회 의원은 지난해 1인당 총 78~93시간 회의에 참석하고 4천800여만원의 의정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이하 법률연맹) 26일 지난해 각 광역의회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토대로 조사한 전국 광역의원 의정백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각 광역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회의록을 기초자료로 분석한 것이며, 운영위원회 회의는 상임위 회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의정백서에 따르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 1인당 회의 참가 횟수는 각각 51.25회와 52.07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회의시간은 광주시의회가 78시간13분, 전남도의회는 93시간44분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됐다.

회의시간을 근로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인 8시간으로 환산하면 광주시의원 10일, 전남도의원은 일하는 시간이 11일에 불과했다. 지난해 광주시의원 1인당 의정비가 4천85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시의원 1인당 회의에 한번 참석할 때마다 받는 의정비는 94만7천317원, 시간당 의정비는 62만712원에 달했다.

전남도의원(1인당 의정비 4천748만원)의 경우 회의 1회 참가당 받는 의정비는 91만1천849원, 시간당 의정비는 50만6천543원이었다.

하루 일당이 평균 400만원을 넘는 셈이다.

출석률은 광주시의원들은 양호했지만 전남도의원들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출석률은 96.38%였으며, 전남도의원은 85%에 그쳤다.

광주시의원 18명 중 ▲김후진 ▲유재신 ▲이명자 ▲이정남 ▲전우근 의원 등 5명은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이 100%로, 모범의원으로 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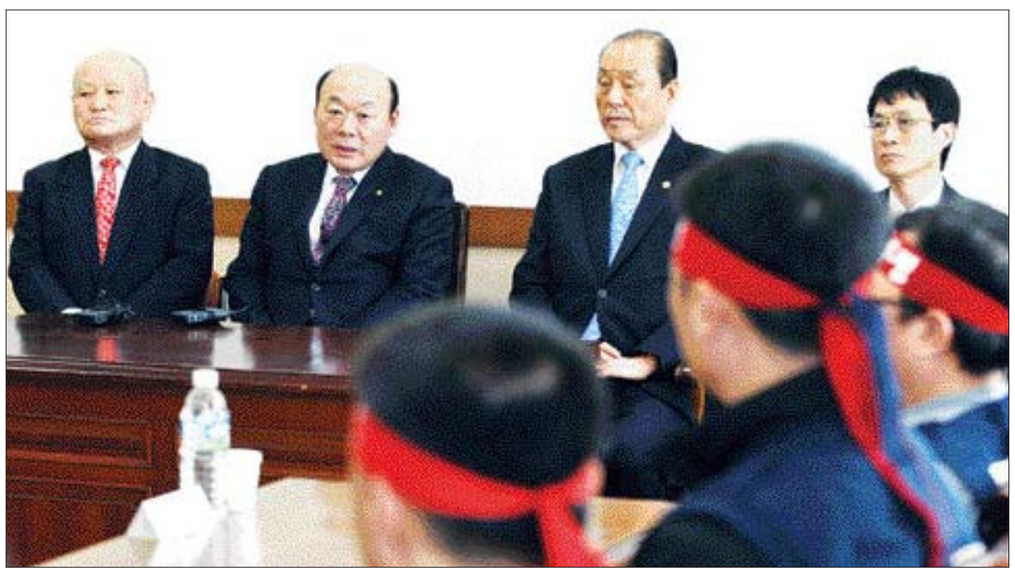
전남도의원은 50명 중 이동권·이종헌 의원 등 단 2명 만이 본회의와 상임위를 포함해 100%의 출석률을 보였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주민 혈세로 의정비를 받으면서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회의 불출석 의원은 의정비를 반납해야 하고, 정치권은 지방선거에서 불성실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가 10일간 진행됐음에도 제외된 만큼 시간당, 회의당 의정비 지급 계산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6개 시·도의회의 연간 평균 회의시간은 106시간이었으며, 광역의원 한 사람당 회의에 참가한 횟수는 평균 60.25회였다. 시간당 의정비는 52만원에 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광태 광주시장과 강박원 시의회의장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26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방문, 노사 양측과 간담회를 갖고 원만한 노사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금호타이어 전면파업 땐 노조가 하루 1억씩 문다

광주지법, 쟁의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금호타이어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노조는 전면파업이나 공장을 점거할 경우 하루 1억원의 강제금을 물게됐다.

광주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선재성)는 26일 금호타이어가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과 고광석 금호타이어 지회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노조의 전면파업 ▲경영상 해고예고 통보된 근로자 193명에 대한 해고 반대 파업 ▲폭력·파괴·중요시설 점거행위 등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한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박 위원장 등 2명이 법원의 결정을 어길 경우 1일당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의 간접 강제금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3가지 항목 외의 쟁의행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으로써 부분파업 등 합법적인 쟁의는 허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절차 중이고 외부자금 유입없이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점, 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가면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전면파업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관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당한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 행사이고, 이 신청은 구체적 쟁의행위가 있기 전이라는 점에서 사측의 신청대로 쟁의행위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의 이번 결정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파산 위기에 직면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동시에 인정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광태 광주시장은 이날 금호타이어 노사협상 현장을 방문, 노사협상을 조속히 타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방문, 노조와 회사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금호타이어 문제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 노사 양측이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한발씩 양보해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금호타이어는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 토착기업으로, 어떤 경우에도 파업은 자제해야 한다"며 "금호타이어의 노사문제가 해결이 돼야 금호그룹 전체의 워크아웃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구조조정 자구안 마련을 놓고 진통을 거듭해온 금호타이어 노사는 24~25일 임금 삭감 수준 및 단체협상과 관련 서로 한발씩 물러선 최종 수정안을 제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어 타결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모십니다"

출산율 전국 1위 불구 분만 병의원 없는 강진군

건물 임대료 제공·평균 수익 보장 등 파격 제시

지난해 '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한 강진군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산부인과 병·의원 공개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강진군은 "지역 산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분만을 전제로 한 산부인과 병·의원을 공개 유치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강진군은 산부인과 병·의원 개설에 따른 건물 임대료를 100%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대도시에서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해 차액을 보전해 주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며 올 상반기 중 산부인과 병·의원을 유치한 뒤 7월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강진군이 이처럼 산부인과 병·의원 유치에 적극 나선 이유는 지난해 '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신생아 수가 많지만 정작 관내에서는 분만을 할 수 없어, 지역 산모들이 목포, 광주 등지로 '원정출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진군은 지난 2005년 4월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출산양육 정책을 펼치면서 2005년 297명에 불과하던 신생아 수는 2008년 417명(출산율 2위)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410명으로 증가해 '출산율 전국 1위'에 올랐다.

황주홍 강진군수는 "강진군은 출산율이 전국 최고인데다 인근의 장흥, 해남, 완도, 고금, 약산까지 생활권에 속해 있어 산부인과 시장 잠재력이 큰 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산부인과 병·의원이 유치되면 군이 앞장서 대대적인 이용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 인구는 지난 1967년 최대 12만 명에서 매년 8%가량 감소하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에 힘입어 43년만인 지난해 말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키클다운 세상을 만드는
참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메시아오케스트라 연주회 ▶3면 달라지는 車 보험 ▶4면 신문 경제기사 제대로 읽기 ▶5면 Books ▶8·9면 독자와 함께 ▶13면 프로야구 개막 ▶14면